

## 조선 후기 해주의 경관과 세태 이미지

## Images of the Landscape and Society of Haeju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박 정 애 \*

Park, Jeong-Ae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Abstract

Haeju was home to the Hwanghae-do Provincial Office and a hub for supporting the northwestern regions of Korea. Local commerce expanded in Haeju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based on its abundant resources and regional products, leading it to evolve into a large city. King Seonjo temporarily resided in Haeju while seeking refuge from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and Yi Yi (sobriquet: Yulgok) secluded himself in Seokdam in Haeju in his later years. King Seonjo's residence in Haeju and Yi Yi's retirement there boosted interest in the city among the literati and influenced its places of scenic beauty. The development of its local history and literary achievements were documented in a wide variety of historical records and visual materials. Eight scenic views in Haeju became famous through a poem written by Seong Su-ik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Around the mid-eighteenth century, eight new scenic views became popular. Local officials and travelers from other regions produced a vast body of prose and poetry focusing on the landscape and society of Haeju, playing a crucial role in raising awareness of its scenic attractions. Most surviving visual materials related to Haeju were created in and after the nineteenth century. Many of them illustrate both landscapes and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Among them, paintings of scenic spots created by Jeong Seon (sobriquet: Gyeomjae), who never actually visited Haeju in person, raises some of the issues posed by relying on indirect materials. In contrast, *Eight Scenic Views of Haeju*,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by a local painter, appears to have accurately highligh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cenic spot. Moreover, *Haejudo*, a folding screen presenting a panoramic view of Haeju, incorporates content from paintings depicting eight scenic views, in this case *Eight Scenic views of Haeju*. This practice can be observed in visual materials of other provincial cities.

주제어 : 해주, 명승, 정선, 팔경도, 실경산수화

Keywords : Haeju, Scenic Spots, Jeong Seon, The Eight-view Paintings, Real Scenery Landscape Painting

## 1. 서론

조선 후기 황해도 감영소재지 해주는 평양과 더불어 서도지방을 떠받치는 정치적·사회적 거점도시였다.<sup>1)</sup>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해주목조

에서는 그 '형승이 남쪽으로 큰 바다와 통하고 북쪽으로는 서쪽 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로서 경기(京畿)를 지키는 보장처'라고 하였다.<sup>2)</sup>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년 왜군이 쳐들어오자 피난길에 오른 선조가 1593년(선조 26) 의주에서 해주로 행궁을 옮겨 잠시 머문 고을이다. 1595년에는 역시 피난중이었던 정원군(定遠君, 元宗으로 추존) 이부(李瑋)가 기거하던 해주의 민가에서 인조가 태어났다.<sup>3)</sup> 또한 울

\* Corresponding Author : inh87@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6494). 이 논문은 2023년 5월 20일 '(사)한국건축역사학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조선 초기 황해도 감영은 황주와 풍천, 해주 등지로 몇 차례 변동되었다.

2) 『輿地圖書』, 「黃海道 海州牧」, “南跨大海 北控西關 陸海之要衝也 山川阻阨 城池險固 畿甸之保障也”;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I』, 디자인 흐름, 2009, 72-73쪽.

3) 『宣祖實錄』 1593년(선조 26) 8월 18일; 李觀命, 『屏山集』 卷8, 「仁祖大王誕降舊基碑陰記」.

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가 말년에 해주 석담(石潭)에서 구곡(九曲)을 경영함에 따라 문인들 사이에 조선성리학의 성지(聖地)로 인식되었다.<sup>4)</sup> 이와 같은 왕실과의 인연이나 이이의 행적은 지역사의 자산이 되었고 해주를 표상하는 이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주의 역사와 지역 정보는 관찬 사서와 각종 지리지, 기행시문, 사환일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기록으로 전한다. 특히 해주 일대 자연적, 인문적 경승은 관련 기록에서 빠지지 않을뿐더러 양적 비중도 상당하다. 나아가 시문서화의 원천 제재로서 다채롭게 변주되었으나 16세기 말 「해주팔영(海州八詠)」이 율어졌다.<sup>5)</sup> 당시의 팔경은 후대로 전승되면서 구성과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여지도서』에 실린 「신팔경(新八景)」은 《해주팔경도(海州八景圖)》의 화제가 되었다. 해주의 경관과 세태가 문자 기록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된 것이다. 또한 18세기 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이 그린 명승도가 전하는가 하면, 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 류도 여러 점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각종 지도와 성읍도(城邑圖) 형식 다폭 병풍까지 더하면, 여타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해주 관련 시각자료는 결코 빈약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 이들 작품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미진한 상태이다.

시각자료뿐 아니라 해주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차적 원인은 20세기 중반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에 귀속된 지역 대부분이 학계의 관심에서 밀려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나마 해주에 파견된 지방관과 유람객의 일기를 다룬 논고가 발표된 바 있다.<sup>6)</sup> 미술사학계에서도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해주도> 병풍, 「해주팔영」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해주팔경도》 등 전래 현황과 그 내용이 소개되었다.<sup>7)</sup> <해주도>를 지방관의 환력(宦歷)을 기념하는 사

례로 다루거나 ‘고산구곡도’를 언급한 논문들도 있다.<sup>8)</sup> 최근에는 조경학 분야에서 《해주팔경도》를 분석하기도 했으나 해주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sup>9)</sup>

이 글에서는 문헌기록과 현진작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해주의 경관과 세태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우선 시각자료의 제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주의 지역사와 명승 경관의 형성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이어서 해주 명승을 조망한 실경산수화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시각적 재현 양상을 살펴보겠다. 18세기에 제작된 정선의 명승도와 19세기 작품인 해주팔경도로 나누어 작화 양태와 회화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근대기 해주를 표상하는 이미지에 다가감으로써 한국회화사의 복원과 지방사 연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2. 해주의 지역사와 명승 경관의 형성

황해도 해주는 본래 고구려의 내미홀군(內米忽郡)으로 고려 태조 때 비로소 ‘해주(海州)’라는 고을명이 붙여졌고 영해(瀛海) 혹은 벽성(碧城) 등 여러 가지 명칭이 혼용되었다.<sup>10)</sup> 조선 1457년(세조 3) 해주에 진(鎭)이 설치되었고, 숙종은 1707년(숙종 33)에 황해도관찰사가 해주목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18세기 중반, 감영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3백 65리로 편도 4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해주목의 진산(鎭山)은 관아에서 북쪽으로 2리 거리에 있는 용수산(龍首山)이었다. 읍성은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처음으로 쌓았고 1747년(영조 23) 관찰사 이천보(李天輔, 1698-1761)가 대대적으로 개축하였다. 당시 북쪽 성벽에 잇대어 곡성(曲城)을 쌓고 장대를 지어 ‘공해대(控海臺)’라 명명하였다.

4)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제61집, 2019, 241-286쪽.

5) 具思孟, 『八谷集』 卷2, 「海州八詠次七峯韻」.

6) 구완희, 「『碧城日錄』을 통해 본 19세기 초의 海州判官」, 『朝鮮史研究』 제2집, 1993, 325-335쪽; 여상진,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2012, 4244-4252쪽; 여상진,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2014, 5835-5843쪽; 김하라, 「俞晩柱의 海州-「欽英」에 나타난 18세기 해주의 역사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 제77집, 2020, 183-222쪽.

7) 박정애, 「19세기 연륙 실경도 병풍의 유행과 작화경향 -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록화 인물화』,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285-293쪽; 박정애, 「19세기 連幅 實景圖 屏風에 관한 고찰」, 『문물』 제8호, 2018, 167-181쪽.

8)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218, 1998, 73-87쪽; 이상원, 「『高山九曲詩畫屏』의 구성상 특징과 所載 詩文에 대한 검토」, 『국제어문』 31집, 2004, 87-114쪽; 諸松姬, 「조선 후기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과 특징」, 『정신문화연구』 통권 144호, 2016, 33-34쪽; 박은순, 「19세기말 20세기 초 회화식 지도와 실경산수화의 변화: 환력(宦歷)의 기록과 선정(善政)의 기념」, 『미술사학보』 56, 2021, 192-197쪽.

9) 노재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해주팔경도(海州八景圖)에 표현된 조선 후기 해주의 풍경과 풍물」, 『문화재』 제54권 4호, 2021, 36-59쪽.

10) 황해도 道名은 고려 말 西海道였던 지역이 조선 태조 4년(1395) ‘豐海道’로 개칭되었고 태종 17년(1417)에 다시 ‘黃海道’로 바뀌었다. 해주의 이칭으로는 벽성과 영해 외에 池城·瀑池·孤竹·首陽·大寧·西海·安西 등이 있다. 해주에 관한 기본 정보는 『輿地圖書』와 『海州志』(국립중앙도서관, 古2760)를 참고해 서술함을 밝힌다.

또한 방형 성곽 사방의 성문에 문루를 세웠는데, 남문인 순명문(順明門)에는 2층 누각을 올렸다. 성 안에 관찰사와 관관, 중군 등 관리들의 정식 업무 공간과 부속 건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백림정(栢林亭)이나 부용당(芙蓉堂) 같은 누정은 유상(遊賞)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제사 공간인 향교와 사직단, 여단은 성 밖에 위치하였다.(그림 1)



그림 1. 해주의 주요 시설 분포도, <해주목지도>(부분), 1872년,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은 『택리지(擇里志)』 「팔도론(八道論)」에서 황해도에 대해 “한양 서북쪽에 위치하고 땅은 평안도나 함경도와 인접하여 풍속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학문하는 선비가 적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납과 철광석, 면화와 참쌀, 멥쌀 그리고 생선과 소금을 생산하고 팔아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이 많으나 대신 사대부 가문은 드물다.”라고 하였다.<sup>11)</sup> 그리고 영조대 편찬된 『여지도서』 해주목 풍속조에는 지역민들이 “농사와 고기잡이와 사냥과 장사를 업으로 삼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sup>12)</sup> 이는 18세기 중반 해주를 거점으로 하는 황해도의 풍속이 인접한 서북지역과 공통점이 많고 상대적으로 현달한 재지사족은 드문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또 각종 물산이 풍부하고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이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10년(순조 10) 해주를 유람한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벽성기관인(碧城奇觀引)」에서 “산천의 명려함과 성지의 험고함, 배와 수레, 민물의 번성함, 어업과 재화의 풍부함이 기성(평양)에 버금가니 역시 일

국의 서쪽 도회지”라고 평가하였다.<sup>13)</sup> 19세기 초 변화한 대도시로 성장한 해주의 특색을 간명하게 요약한 것으로, 그는 해주의 사적과 누정, 사우 등 개별 명승 경관에 대한 기문도 따로 작성하였다. 18세기 들어 가속화된 상업 활동에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며, 그 결과 홍경모에게 해주가 평양에 뒤지지 않는 도시로 비칠 정도가 된 것이다.<sup>14)</sup>

지리적으로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해주에는 경치가 빼어난 명소와 사적들이 산재하였다. 관련 자료 중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칠봉(七峯) 성수익(成壽益, 1528-1598)의 「해주팔영(海州八詠)」이 주목된다.(표 1) 8수의 칠언시 소표제는 수양채미(首陽採薇)·광석완사(廣石浣紗)·부용야우(芙蓉夜雨)·영해추월(瀛海秋月)·신광제설(神光霽雪)·지성폭포(池城瀑布)·남포관조(南浦觀潮)·동성송객(東亭送客)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성수익이 「해주팔영」의 원조라 생각되며, 비슷한 시기에 황해감사를 지낸 인조의 외조부 구사맹(具思孟, 1531-1604)이 성수익의 팔영을 차운한 「해주팔영차칠봉운(海州八詠次七峯韻)」도 확인된다.<sup>15)</sup>

여기서 잠시 서도지역의 또 다른 도시 평양으로 눈을 돌려보면, 「평양팔영(平壤八詠)」은 15세기 말 창작된 조위(曹偉, 1454-1503)의 작품이 가장 앞선다. 또한 성현(成俔, 1439-1504)이 조위의 시를 차운한 점이 해주와 유사하다. 「평양팔영」의 소표제는 을밀상춘(密臺賞春)·부벽완월(浮碧翫月)·영명심승(永明尋僧)·보통송객(普通送客)·차문범주(車門泛舟)·연당청우(蓮塘聽雨)·용산만취(龍山晚翠)·마탄춘창(馬灘春漲)이다. 「해주팔영」과 마찬가지로 앞 두 글자는 장소명이고 나머지 두 글자는 경관의 정취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완월·송객·청우는 각각 「해주팔영」의 추월·송객·야우에 대입된다. 장소명에 평양과 해주를 대표하는 사찰 영명사와 신광사가 포함된 점도 상통한다. 한편 조위와 성현의 「평양팔영」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렸다. 주지하다시피 『신증동국여지

13) 洪敬謨, 『冠巖全書』 冊12, 「碧城奇觀引」, “...山川之明麗 城池之險固 舟車民物之盛 魚鹽貨財之富 亞於箕城 而亦一國西之都會也...”

14)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戶口總數』에 기재된 해주 인구 9,958명은 21,869명인 평양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김두섭은 당시 실제 인구는 해주가 13,683명, 평양이 32,665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김두섭,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학회』 24, 1992, 7-23쪽.

15) 1888~1893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海州志』 下에는 성수익과 구사맹의 팔영 全文이 실려 있다. 李泰鎭·李相泰 책임감수, 『朝鮮時代 私撰邑誌』 33, 黃海道 3 海西邑誌(영인본), 한국인문과학원, 1990, 463-466쪽.

11) 이중환 지음, 안대희·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8, 23쪽.

12) 서중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I, 디자인 흐름, 2009, 89쪽.

표 1.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해주팔경과 해주명승

	경관명	구팔경	신팔경	비고
1	首陽山	首陽採薇		관아에서 동쪽 5리에 위치하는 산으로 수양산성이 있음.
2	廣石川	廣石浣紗	廣石濯足	관아의 북쪽 3리에 위치하는 하천.
3	芙蓉堂	芙蓉夜雨	芙蓉賞蓮	읍성 내 수양관 남쪽 연못 안에 있는 누정.
4	瀛海樓	瀛海秋月	瀛海玩月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읍성 내 鳳池樓 터에 증건한 누정으로 감사 南袞이 영해루라 명명함.
5	神光寺	神光霽雪		관아 북쪽 북송산에 자리한 사찰.
6	池城瀑布	池城瀑布		수양산의 폭포를 가리키며 지성은 해주의 이칭임.
7	南浦	南浦觀潮		읍성 남쪽의 결성포 일대 포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
8	東亭	東亭送客	東亭釣魚	관아 동쪽 5리에 있는 정자로 海雲亭이 별칭.
9	栢林亭		栢林觀德	읍성 내 객사인 수양관 북쪽에 있는 정자.
10	南山		南山望海	관아에서 남쪽으로 3리 거리에 있는 산으로 정상에 망해대와 봉수대가 있음.
11	南江		南江泛舟	읍성 남쪽 결성포 일대 바다를 가리킴.
12	泣川		泣川送客	관아에서 동쪽으로 31리에 위치하는 하천.
13	許亭			관아 서쪽 10리에 자리한 허씨 집안의 정자로 원래 이름은 挹淸亭이었음.
14	石潭			관아에서 서쪽으로 40리에 위치하며 율곡 이이의 구곡, 소현서원, 요급정 등이 있음.

승람』의 배포는 전국 각지의 명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고 16세기 이후 늘어난 사찬읍지 체제의 전범으로 쓰이는 등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sup>16)</sup> 따라서 「해주팔영」이 처음 등장할 때, 이미 1백여 년 전에 지어진 「평양팔영」이 성수익의 영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시대가 내려오면서 팔영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고, 팔영이 팔경도의 화제로 전용된 점까지 상호 간의 유사점은 더 있다.<sup>17)</sup>

영조대 편찬된 『여지도서』 「해주목」에 실린 팔경은 광석탁족(廣石濯足)·백림관덕(栢林觀德)·부용상련(芙蓉賞蓮)·영해완월(瀛海玩月)·남산망해(南山望海)·동정조어(東亭釣魚)·남강범주(南江泛舟)·읍천송객(泣川送客)이다. 성수익의 팔경과 다른 ‘신팔경’인데,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알 수 없다. 16세기 말 이후 100여 년 사이에 일부 장소명과 행위에 드러나들이 생겼음은 분명하다. 이 신팔경은 유만주(俞晩柱, 1755-1788)가 1782년부터 2년여간 해주관관으로 재직할 부친 유한준(俞漢雋, 1732-1811)의 임소를 왕래하며 쓴 해주일기에 ‘금팔경(今八景)’으로 성수익의 ‘고팔경(古八景, 구팔경 지칭)’과 함께 소개되었다.<sup>18)</sup> 또 1810년에 해주를 방문한 홍경모의 「벽성기(碧城記)」에도

신구 팔경이 모두 수록되어 19세기까지 구팔경이 사장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sup>19)</sup> 하지만 현전하는 《해주팔경도》는 신팔경에 기반한 것이어서 『여지도서』가 편찬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팔경’이 해주팔경으로 공인된 듯하다.

결과적으로 신구 팔경에서 추출되는 장소명은 총 12개이며, 수양산·광석천·부용당·영해루·신광사·지성폭포·남포·동정·백림정·남산·남강·읍천이다. 그 중 광석천·부용당·동정·영해루는 2종의 팔경에 모두 포함되었다. 구팔경의 수양산과 지성폭포, 북송산의 신광사, 남포 등 상대적으로 읍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승들은 신팔경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성내 거주하는 관리들의 상시 업무 및 일상과 밀착된 경승 위주로 신팔경이 재구성된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해주의 승경 권역이 수양산을 중심으로 한 읍치 북쪽에서 읍성 내부와 남부로 집중되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sup>20)</sup> 사실상 신구 팔경에 포함된 경승들은 유엄(柳儼, 1692-?)의 「해영잡영(海營雜詠)」과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벽성잡영(碧城雜詠)」, 홍경모의 기문 등 19세기까지 각광 받은 대표적 명승으로 뿌리 내렸다.<sup>21)</sup> 그 중 광석천과 주변의 누정들, 수양산과 인

16)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해안, 2002 참조.

17) 「평양팔영」과 「평양팔경도」에 대해서는 박정애, 「朝鮮後期 平壤名勝圖 연구 - 『平壤八景圖』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39집, 2012, 317-352쪽 참조.

18) 俞晩柱, 『欽英』 1782년 9월 18일.

19) 洪敬謨, 『觀巖全書』 冊18, 「碧城記」.

20) 노재현, 앞의 논문, 41쪽.

21) 「碧城雜詠」 4수의 소표제는 栢林觀德·北臺旣月·瀛海觀獵·東亭釣魚이다. 尹行恁, 『碩齋稿』 卷1, 「碧城雜詠」. 洪敬謨의 『觀巖全書』 冊18에는 「碧城記」 외에 海雲亭·芙蓉堂·芙蓉堂西小室·聖祖誕降遺址·石潭九曲·淸聖廟·忠節祠·紹賢書院 등이 실려 있다.

근의 청성묘(淸聖廟), 성내 부용당이 특별히 애호되었다.

이 밖에 관아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석담천(石潭川)에 이이가 조성한 고산구곡(高山九曲)이나 제5곡 은병정사(隱屏精舍)에서 비롯되어 1610년(광해군 2)에 사액된 소현서원(紹賢書院)도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은 곳이다. 읍성 서쪽 10리 거리에 자리한 명천(明川) 가의 정자 허정(許亭)도 빼놓을 수 없다. 『해주지』에 의하면 허정의 원래 이름은 읍청정(攄淸亭)으로 참봉 안처중(安處中)의 별서였으나 그의 외손 허희(許曦)가 물려받으면서 허씨 집안의 정자, 즉 ‘허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명성은 허정을 다녀간 문인들의 자취와 정선의 그림이 방증한다.<sup>22)</sup>(표 1)(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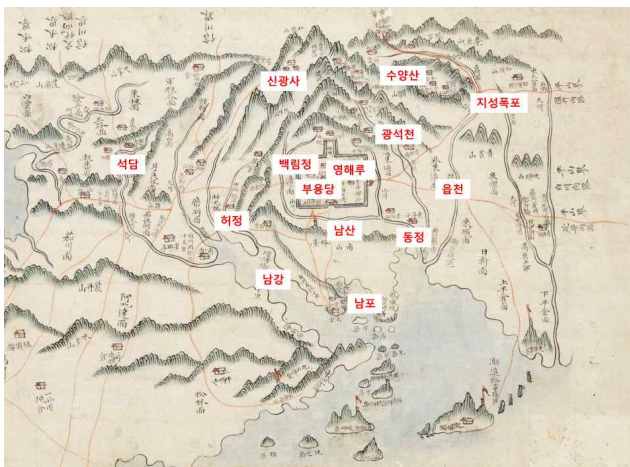


그림 2. 해주 일대 주요 명승의 위치, <해주목지도>(부분), 『해동지도』, 18세기중반,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와 같은 명승은 18세기 들어 확산된 산수유람 풍조와 더불어 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린 판놀이로 수렴되기도 했다. 이른바 승람도(覽勝圖) 놀이로 문인들이 모여 전국 각지의 명승지로 만든 도표 형식의 말판과 운목을 이용해 원유(遠遊)를 대신하는 소일거리로 즐겼다. 현전하는 각종 남승도 말판에 포함된 황해도 명승은 총 13곳인데, 그 중 부용당·수양산·석담·신광사가 해주 명승에 속한다.<sup>23)</sup>

한편 8경을 비롯해 주요 명승의 형성에 관여한 인물들은 지역민이 아니라 해주에서 벼슬살이를 하거나 유람 목적으로 방문한 타지 출신 관료문인들이다. 기본적으로 해서지역은 중앙정부를 장악한 지배층 사대부의

출신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앞서 인용한 관찬·사찬 지리지에서 학문적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라고 진단한 것도 동일한 맥락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정 기간 해주에 체류하다가 떠난 관료문인들의 시문이 회자되면서 명승의 성립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명승의 선정에 외지인의 시각과 취향이 개입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들은 해주 명승을 전국에 알리는 첩병 역할을 했으며, 해주 관련 서화의 주문과 제작을 견인한 인적 집단이기도 하다. 요컨대 해주의 명승·명소는 전근대기 문인지식인들의 지향과 기호가 투사된 해주의 표상적 이미지였다고 할 수 있다.

### 3. 해주 일대 경관과 세태의 시각화 양상

이 글에서 해주 관련 시각자료는 현지의 실제 경관과 세태를 회화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들을 지칭한다. 현전작은 조망 범위에 따라 해주성 내외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도 및 성읍도 계열과 특정 명소에 초점을 맞춘 명승도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표현 형식과 내용 면에서 회화식 지도와 실경산수화, 행사기록화, 풍속화 등 다양한 화목(畫目)의 특징이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명승도에 해당하는 정선의 작품과 작자미상의 《해주팔경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 3-1. 정선의 해주명승도

정선은 실경산수화가 조선 후기 화단에서 주류 장르로 안착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화가이다. 그는 금강산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호서, 영남 등 광범한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지역별 대표 명승의 시각적 전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정선이 황해도 이북지역을 방문한 행적은 발견되지 않는데, 그의 해주명승도가 확인되어 주목된다.<sup>24)</sup>

우선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의 기록으로 전하는 <석담도(石潭圖)>가 있다.<sup>25)</sup> 해주 석담은 이이의 학문과 행적을 추승한 서인 노론계 문사들이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가 집대성한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여긴 곳이다. 연이은 사화로 정국이 요동치던 시기에 이이의 「고산구곡가」와 당대 문

22) 『海州志』 上, 樓臺; 具思孟, 『八谷集』 卷1, 「次挹淸亭韻」; 李敏求, 『東州集 詩集』 卷12, 西湖錄, 「許亭賦八物」.

23) 박정혜, 「남승도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179-187쪽.

24) 정선의 연보는 최완수, 『검재 정선』 3, 현암사, 2009, 492-513쪽 참조.

25) 권섭, 『玉所集』 卷1, 「題石潭圖」, “巫倩鄭君元伯作畫 而掛之壁 我心良苦一律題之”; 윤진영, 앞의 논문, 84쪽.

인들의 차운시, 그리고 <고산구곡도>를 합철한 《고산구곡첩》이 제작되기도 했다. 국문시가인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한역(漢譯)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필두로 김수증(金壽增, 1624-1701)·권상하(權尙夏, 1641-1721) 등이 노론 세력의 결집 도구로 시화(詩畵)를 활용한 것이다.<sup>26)</sup> 1688년 《고산구곡첩》의 제작을 추진하기 직전 송시열은 김수증을 통해 <고산구곡도>를 열람하였다.<sup>27)</sup> 송시열이 사사된 후 권상하가 대리하여 1709년경에 마무리한 《고산구곡첩》에 실린 차운시 창작에는 김수증·김수항(金壽恒)·김창흡(金昌翕) 등 세칭 장동김문(壯洞金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들은 정선의 회화를 애호한 후원자 그룹에 속하여 정선이 그린 <석담도>는 일종의 ‘고산구곡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장동김씨 집안과 주변 문사들의 행보는 <석담도>뿐 아니라 현전작의 제작 경위를 추적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개인 소장 <해주허정도(海州許亭圖)>는 정선이 해주 읍성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명천 가에 자리한 정자, 허정의 경치를 담은 그림이다.<sup>28)</sup>(그림 3) 천류가 상부 우측에서 사선으로 흐르다 꺾이며 화면을 가르고 물길 좌측은 깎아지른 암벽에 가로막혀 있다. 건너편 대 위의 정자가 허정이며, 그 아래 커다란 바위에서 솟아난 소나무가 자리한다. 허정은 별칭인데, 『해주지』에서는 그 특색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읍청정은 고을 서쪽 10리에 있다. 큰 내가 흘러 정자 아래 이르러 못이 되었다. 푸른 바위가 갑자기 일어나 모습이 높은 대와 같고, 키 큰 소나무가 짙은 그늘을 이루고 푸른 암벽이 빙 둘러쌌다. 상수리나무·배나무·대추나무·뽕나무·마가 울창한 동부가 깊고 그윽하니 고을에서 제일 좋은 경치이다. 참봉 안처중의 별서인데, 못 가운데 거북이가 들어가 살고 있다. 그의 외손 허희에게 물려주어 속칭 허정이라 한다.<sup>29)</sup>

26) 윤진영, 위의 논문, 73-76쪽; 이상원, 「조선후기 <高山九曲歌>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화연구』 제24집, 2003, 34-52쪽;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 2006, 9-22쪽.

27) 권섭의 『玉所藏畵』에 실린 「又書(高山九曲圖說)」에 따르면, 김수증이 소장한 <고산구곡도>는 당시 元萬齡의 소장품을 曹世傑에게 모사시킨 작품으로 원본은 이이의 庶玄孫이 그린 것이었다. 이와 관련되는 작품인 <谷雲書 高山九曲圖>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史料集眞』 제4집에 흑백도판으로 실려 있는데, 당시 해주에 살던 李種文의 소장품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진영, 위의 논문, 73쪽; 이상원, 위의 논문, 34쪽.

28) 정선의 <해주허정도>는 1992년 대립화랑에서 개최한 “조선시대 회화전”에 출품된 바 있다.

29) 『海州志』上, ‘樓臺’, “挹淸亭在州西十里 大川流至亭下作潭 蒼巖陡起狀若高臺 喬松濃陰翠壁相環苞 櫟梨棗桑麻蓊鬱 洞府深邃 州中第一勝槩也 參奉安處中之別墅 而池中龜入居之 傳其外孫許曠俗稱許亭”.



그림 3. 정선, <해주허정도>, 18세기, 지본 담채, 90.0×57.5cm, 개인

위의 기록을 통해 세간에 허정이 자리한 골짜기를 동부(洞府), 즉 신선이 사는 곳에 빗대어 상찬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화면에 대입해 보면, 정자와 바위, 하천, 소나무, 암벽 등의 경관 요소가 상호 연계된다. 동시에 강한 기시감(既視感)이 드는 것은 구도는 물론이고 누정 건너편에 병풍처럼 늘어선 절벽이 1747년 작 <화적연(禾積淵)>과 <정자연(亭子淵)> 같은 정선의 명승도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그림 4) 실제 허정을 본 적이 없는 정선은 주문자의 전언과 『해주지』 같은 문헌기록을 참고했을 터이고 작업 과정에서 평소 몸에 익은 필벽(筆癖)이 발동한 듯하다.

사실 허다한 관료문인들이 공적·사적 기회를 빌어 허정을 방문했고, ‘허정’의 내력과 정취를 읊은 시문을 남겼다. 황해감사를 지낸 김유(金樸, 1653-1707)를 비롯해 이하곤(李夏坤)·이민구(李敏求)·서종화(徐宗華)·허전(許傳) 등을 꼽을 수 있다.<sup>30)</sup> 김수증도 일찍이 석담서원과 함께 허정을 돌아보았다.<sup>31)</sup> 또한 김수증의 아우인 김수항의 아들 김창집(金昌集, 1648-1722)과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어린 시절 해주목사를 지낸 외조부 나성두(羅星斗)를 따라가 한동안 해주에서 지

30) 金樸, 『儉齋集』卷30, 「庚辛瑣錄 庚申辛酉」; 李夏坤, 『頭陀草』冊1, 「遊許亭」; 李敏求, 『東州集 詩集』卷12, 西湖錄, 「許亭賦八物」; 徐宗華, 『藥軒集』卷2, 「碧城雜詠」; 許傳, 『性齋集』卷14, 「挹淸亭重修記」.

31) 金壽增, 『谷雲集』卷1, 「成都述懷」.

냈다. 두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기억을 반추하곤 하였다.<sup>32)</sup> 김창협이 1699년(숙종 25) 해주목사로 부임하는 이희조(李喜朝, 1655-1724)를 전송하며 쓴 전별시도 아래와 같은 회고로 시작된다.



그림 4. 정선, <화적연>, 《해악전신첩》, 18세기, 견본담채, 32.2×25.0cm, 간송미술관

首陽山色滿西州 수양산의 산 빛이 충만한 해주  
此地曾經童子游 어렸을 적 우리 함께 뛰어 놀았지  
四十一年如夢過 꿈결처럼 사십일 년이 지나가고  
送君今日意悠悠 오늘날 그대를 보내려니 회포가 끝이 없어<sup>33)</sup>

그는 이어서 광석·부용당·허정·(수양)산성·이자대(二子臺)·석담 등을 읊었는데, ‘허정’에 부친 시는 “소나무 비추이는 허씨 정자 앞 못에/ 봄놀이 나온 사람 그 얼마나 정다웠나/ 지금도 생각나네 속이 비어 기이한 돌/ 먼 옛날 시내 용이 변한 거라 전해졌지(許氏亭前潭映松 春游冠服幾從容 至今猶憶嶽空石 人道溪中昔化龍)”이다. 시구에 등장하는 정자 앞 못과 바위, 소나무 등은 <해주허정도>의 경물들과 호응한다.

김창협집의 경우 해주에서 뛰놀던 시절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698년 봄, 황해도 배천군수에 제수되었다. 이때 형의 임소를 찾은 김창흡(1653-1722)은 내친김에

석담서원과 허정 등 명승지를 유람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은 정황은 현진하는 정선의 해주명승도가 장동김씨 일족의 주문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선이 장동김문의 세거지를 재현한 <청풍계도(淸風溪圖)>를 여러 점 제작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고 서화 교류도 잦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흡 집안의 요청이라면, 정선이 현장 답사를 못했더라도 화필을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로선 <해주허정도>의 주문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정선이 간접 자료에 의존해 제작한 탓에 현장성을 담보해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주광석도(海州廣石圖)>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그림 5) 여백에서 화제와 관서(款書), ‘겸재(謙齋)’라 새긴 백문방인이 확인된다.<sup>35)</sup> 화면 상부에 늘어선 산자락에서 뻗어 나온 천변에 송림에 둘러싸인 누각이 포치되었다. 하단에 산모퉁이를 돌아 누정으로 향하는 선비 두명이 보인다. 산 언덕의 미점준(米點皴)과 솔숲의 수지법(樹枝法), 점경인물 표현 등 정선의 개성적 필묵법이 쓰였다. 광석천과 탁열정(濯熱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경물의 위치와 형태가 실제 현장과는 차이가 있다.

광석천은 관아의 북쪽 11리에 자리한 우이산(牛耳山)에서 발원한 계류가 비류담(沸流潭)과 부연(釜淵)을 거치며 동남쪽으로 흘러 해운정(海雲亭), 곧 동정(東亭)을 지나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이었다.<sup>36)</sup> 천변을 따라 1579년(선조 12) 해주목사 황정욱(黃廷彧)이 처음 건립한 탁열정을 비롯해 여러 누정이 자리했고, 평평한 반석이 널려 있어 선비들이 탁족(濯足)을 즐기는 장소이자 여인들의 빨래터로 애용되었다. 김창협도 이희조를 전송하며 쓴 시와 1695년(숙종 21) 황해감사 이정명(李徵明)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광석천과 탁열정을 언급하였다.<sup>37)</sup> 그러나 <해주광석도>에서는 그러한 정경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평지에 단층으로 지은 탁열정을 높은 돌기둥 위에 건립한 누각으로 묘사하였다.(그림 6) 결과적으로 정선은 화면에 광석천 일대 경관의 특징이나 세태 이미지를 전혀 살려내지 못하였다.

34) 金昌翁, 『三淵集』 卷6, 「許亭」.

35) <해주광석도>(중 9913)는 소장처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 “海州磨石”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해주에서 ‘磨石’이라 칭하는 명승지를 찾기 어렵고 화면에 묵서된 畫題의 필획이 ‘廣石’에 가까운 것으로 판독되었다. 화면의 내용도 해주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히는 ‘광석천’을 그렸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여 제목을 ‘해주광석도’로 정정해 사용함을 밝힌다.

36)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I』, 디자인 흐름, 2009, 76쪽.

37) 金昌協, 『農巖集』 卷6, 「詠懷故跡 贈別同甫之任海州」; 金昌協, 『農巖集』 卷17, 「與李伯祥 乙亥」.

32) 金昌集, 『夢窩集』 卷4, 「南遷錄」, 「述懷」; 金昌協, 『農巖集』 卷17, 「與李伯祥 乙亥」.

33) 金昌協, 『農巖集』 卷6, 「詠懷故跡 贈別同甫之任海州」.

만일 묵서한 화제가 없었다면 그 장소를 해주광석으로 비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 5. 정선, <해주광석도>, 18세기, 지본담채, 89.0×57.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6. 해주 광석전과 탁열정 모습, 20세기 초

이미 알려진 대로 해주처럼 정선이 평생 방문한 적이 없는 평양과 함흥의 명승 그림도 전하고 있다. 그 중 태조 이성계가 성장기를 보낸 함흥본궁에 심었다는 수식송(手植松)을 그린 <함흥본궁송도(咸興本宮松圖)>와 관련해 박사해(朴師海, 1711-1778)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 흥미롭다.

신이 일찍이 몸소 궁을 살펴보니 함흥부 동쪽에 있으며, 우리 태조대왕의 옛 집이었습니다. 태조께서 손수

심으신 소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크기는 소를 가릴 만하였고 그 줄기는 붉었으며 가지는 아래로 늘어져 땅에 닿아서 소나무 보기를 많이 하였지만, 그 장대함이 이와 같은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중략) 신이 정선을 위해 그 본 바를 말하고 그것을 묘사하게 하니 (정) 선은 사실 보지 못하였고 말만 들었으나 그 방불함이 있습니다.<sup>38)</sup>



그림 7. 정선, <함흥본궁송도>, 《검재정선 화첩》, 견본담채, 28.9×23.3cm, 왜관수도원

위의 글에서 박사해는 1756년(영조 32) 어명을 받고 함흥에 다녀온 후 정선에게 본궁의 수식송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비슷하게 그려냈다고 평가한다. 당시 정선이 팔순에 접어든 만큼 이후에도 함흥을 방문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정선이 왜관수도원 소장 <함흥본궁송도>를 제작한 경위를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된다.(그림 7) 그러나 박사해의 칭송과 달리 현전 <함흥본궁송도>는 화가가 현장을 보고 그린 여타 작품 속 수식송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sup>39)</sup> 1751년(영조 27)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으로부터 <도산도(陶山圖)> 제작을 의뢰받은 문인화가 표암(豹菴)姜世暉(姜世晁, 1713-1791)은 발문(跋文)에서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안동 도산지역 실경을 닮게 그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sup>40)</sup> 마찬가지로

38) 朴師海, 『蒼岩集』 卷9, 「咸興本宮松圖記」, “嘗躬視宮 在咸興治東我太祖大王舊第也 有太祖手植松三 其大蔽牛 其幹赤 枝下垂至地 見松多 未有若此其壯 其一 衣以銅丈餘 傳言壬辰海寇 斧而血 懼止後 有是蓋 裏其創也 臣爲鄭散 道其所見 使摹寫之 散實未見 聞言而存其髣髴 臣又伏觀建元陵寢柱斧痕 其事與松符焉 崇禎紀元後三丙子 臣師海敬記”. 崔完秀, 「謙齋 鄭散 研究」, 『謙齋 鄭散 眞景山水畫』, 범우사, 1993, 333쪽에서 재인용.

39)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313-316쪽.



정선도 박사해의 설명에만 의존해 <함흥본궁송도>를 완성하기는 버거웠을 것이다.

유사한 문제점은 정선의 <연광정도(練光亭圖)>에도 노출되어 있다.<sup>41)</sup> 평양 대동강 건너편에서 부감시로 조망한 만큼 성벽 위 단층 누각으로 묘사했어야 할 연광정을 높은 석주(石柱)가 떠받치는 2층 건물처럼 형상화한 점에서 <해주광석도>의 탁월정 묘사 방식과 상통한다. 이어서 살펴볼 《해주팔경도》의 <광석탁족>과 비교하면, 정선의 <해주광석도>가 지닌 한계점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18세기에 해주명승도의 수요가 있었고, 정선처럼 이름난 화가가 그 주문을 소화했다는 사실은 회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 3-2. 해주팔경도

《해주팔경도》의 체재는 16세기 말 성수익의 「해주팔경」, 즉 구팔경에서 유래하였다. 다만 ‘구팔경’에 기반하는 팔경도의 제작 여부나 신팔경이 성립된 시기와 경위는 불분명하다. 『여지도서』를 비롯해 유만주와 홍경모의 기록에 신팔경은 시 없이 소표제만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소장팔경도(瀟湘八景圖)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팔경도 제작 관습에 의하면, 팔경시가 앞서고 뒤이어 팔경도가 그려지는 수순을 밟았다.<sup>42)</sup> 따라서 신팔경도 먼저 시로 읊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해주팔경도》는 바로 ‘신팔경’, 즉 백림관덕·광석탁족·남산망해·동정조어·부용상련·영해완월·남강범주·읍천송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전래 도중 <백림관덕>과 <영해완월>이 결실되어 현재 여섯 폭만 전한다.(그림 8)

신팔경의 첫 번째 장면인 <광석탁족>은 말 그대로 ‘광석천에서 밭 씻기’가 화제이다. 광석천의 풍정은 일찍이 성수익과 구사맹의 「광석완사」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

磨甿地鏡布寒波 땅 거울 같고 닦아 찬 물결 펼쳐 놓았으니  
二八丫鬟浣白紗 이팔청춘 여종이 흰 비단을 빠네  
應是洛神多意緒 응당 낙신이 생각이 많을 것이니  
故將妖艷向人誇 짐짓 요염한 자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네 (성수익)

石上清川漾白波 바위가 맑은 내에 흰 물결 일렁이니  
越娥分占浣蟬紗 어여쁜 여인들이 지리를 차지하고 비단을 빠네  
何當捲取如霜素 어찌 하면 서리처럼 하얀 것을 거두어 취해  
寄向緇塵染處誇 검은 먼지로 물든 곳에 부쳐 자랑할 수 있을까 (구사맹)

이 두 사람의 시는 16세기 말에 이미 여인들이 광석천 맑은 물에 빨래하는 장면이 지역을 표상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해준다. 그 광경을 언급한 기록이 적지 않은데, 유만주의 일기 『흥영』에서도 관련 내용이 발견된다. 그는 1782년(정조 6) 가을, 처음으로 해주에 가서 한 달 정도 체류했는데, 9월 21일 자 일기에 광석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날씨가 맑아 유상하기에 적당하니 손님과 더불어 성벽 길을 따라가다 북성문으로 나갔다. 청성묘로 향하는 길에 광석천을 경유하니 하류에 주름진 돌들이 널려 있고 푸른 물이 흐르고 단풍에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으니 일찍이 그림 속에서 본 것과 같다. 빨래하는 이들이 무리를 이루었으니 옥으로 장식하고 채색 옷 입은 이가 많다.<sup>43)</sup>



그림 8. 작자미상, 《해주팔경도》, 19세기, 지본채색, 각 49.9×35.0cm, 온양민속박물관

40)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研究』, 일지사, 1988, 72-74쪽.

41) 정선의 <연광정도>에 대해서는 박정애, 앞의 책, 190-191쪽.

42) 소장팔경을 비롯한 동아시아 팔경문학과 팔경도에 대해서는 안휘준, 『韓國의 瀟湘八景圖』,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8, 162-249쪽;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박해훈, 『한국의 팔경도』, 소명출판, 2017 참조.

43) 俞晚柱, 『欽英』, 1782년 9월 21일, “日甚峭清 政合遊賞 與客從城路出北城門 向清聖廟 道經廣石 下流皴石離立 青水流之 楓錯丹黃 如曾見畫圖中者 泝澗成群 多玉雕彩被”.



그림 9. <광석탁족>, 《해주팔경도》 중

북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간 유만주는 청성묘로 가는 길에 만난 광석천을 둘러보고 이전에 감상한 그림을 떠올린다.<sup>44)</sup> 그는 가을색이 완연한 광석천에서 화사한 복식의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이 담긴 ‘광석천도’를 본 듯하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유만주가 본 그림은 정선의 <해주광석도>보다는 ‘광석완사’ 내지는 ‘광석탁족’의 이미지에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만주가 광석천으로 나서기 3일 전에 쓴 일기에서 ‘고금(古今)’의 팔경을 언급한 만큼 《해주팔경도》의 <광석

탁족>처럼 탁족과 빨래 장면이 묘사된 ‘광석천도’의 일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그림 9) 실상 광석천의 완사와 탁족은 어느 시기에도 해주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단면이었다. 따라서 완사 혹은 탁족 중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어도 광석천의 장소성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광석탁족>은 그와 같이 전형적인 광석천의 경관과 세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한 작품이다.(그림 9) 산과 언덕, 건물, 수목, 바위 등 제 경물과 인물의 묘사법이나 회화성으로 보아 중앙화사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가 그린 듯하다. 수목 선염과 담채를 써서 바위에 음영 표현을 구사하였다. 상부 산자락부터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물길은 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폭이 넓어진다. 오른쪽 상부에 우뚝 솟은 수양산 봉우리와 하천 왼편에 자리한 정자, 즉 탁열정이 눈에 들어온다. 하천 내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가 널려 있으며, 하류 쪽에 규모가 크고 평평한 바위들이 몰려 있다.<sup>45)</sup> 공터로 처리한 탁열정 앞마당은 필요시 감영 소속 군사들의 훈련 및 점검 장소로 쓰였다고 한다.<sup>46)</sup>

이와 같은 경관 요소를 정선의 <해주광석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자 근처 내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반석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남성과 물속에서 헤엄치는 소년들, 하류 쪽에 모여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반석 위에 쪼그려 앉은 세 여인은 힘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하천 밖에는 빨래를



그림 10. 작자미상, <해주도> 10폭 병풍, 19세기, 건본담채, 128.5×311.4cm, 국립중앙박물관

44) 유만주는 『흙영』 1783년 11월 15일조 일기에서 평안도 성천의 명승을 그린 <降仙樓圖>를 감상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평안도와 함께 서도지역으로 불린 황해도 해주 광석천을 조망한 명승도도 감상했던 것이다. 유한준과 유만주父子는 서화고동의 수집과 감상에 관심이 깊었고 18세기의 저명한 수장가·화가들과 친교를 나누었다. 황정연,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 신구문화사, 2012, 535-565쪽 참조.

45) 광석천 일대의 바위에는 현장을 방문한 문인관료들이 기념으로 새긴 廣石·沸流潭·釜淵·屏巖水石 등 수많은 刻字들이 있었다. 『海州志』上, 「山川」, 「廣石川」.

46) 김용국, 『황해도지(명승고적편)』,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내 황해도, 1970, 41-42쪽.

바닥에 퍼 말리는 여인들이 무리지어 있다. 빨래 함지를 머리에 인 여인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귀가하는 모습도 보인다. ‘광석탁죽’이라는 화제가 무색하게 ‘완사’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탁죽과 완사 장면은 각각 동아대학교석당 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해주도> 병풍의 광석천 부분에도 삽입되었다.(그림 10) 두 점 모두 해주성 내외의 주요한 지형지물을 포괄한 성읍도이며 관찰사 행렬까지 그려 넣은 대형 병풍화이다.<sup>47)</sup> 이들 작품에서는 1867년(고종 4) 12월 황해감사에 제수되어 2년여 간 재임한 조석여(曹錫輿, 1813-1888 이후)가 광석천변에 건립한 사미정(四美亭)이 존치하여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sup>48)</sup>

원래 8폭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대박물관 소장본은 선화당과 부용당 같은 감영의 핵심시설이 밀집된 구역을 담은 화폭이 결실된 채 6폭만 전한다. 그나마 해주성 밖 교외 구역은 온전한 상태인데, 화면 곳곳에 행인과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그려 넣었다. 제4폭과 제5폭에 걸쳐 있는 광석천의 탁열정 앞마당에 활쏘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포치해 군사 훈련장으로 쓰였던 곳임을 암시한다. 냇물에 들어가 탁죽하거나 미역을 감는 이들, 그리고 20여 명의 빨래하는 여인들이 보인다.<sup>49)</sup>

전체 10폭이 온전한 상태로 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본에서도 감사 행렬과 함께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눈에 띈다. 특히 제5폭~제7폭에 걸쳐 있는 광석천 부분에 인과가 몰려 있는데, 다름 아닌 탁죽과 완사 장면이 연출되어 있다. 제6폭의 중앙부 신당교(新塘橋) 부근에 빨래하는 여인들이 포치되었다.(그림 10-1) 심지어 제5폭의 광석천 하류에 갖과 도포를 한쪽에 벗어놓고 알몸 상태로 바위에 앉아 피서하는 남성들도 그려져 있다. 이러한 광경은 <해주도>의 제작의도가 해주의 표상적 이미지를 최대한 수렴하는 데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신팔경’의 소표제를 모두 화면에 묵서한 이유도 <해주도>에 해주의 총체를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50)</sup> 아울러 <광석탁

죽>과 2점의 <해주도> 병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건물이나 수목에 비해 과장된 크기로 그려진 점도 특징적이다. 빨래하는 여인들 대다수가 원색의 치마저고리 차림인 것은 해주 여인들이 치장하기를 좋아했다는 전언에 부합한다. 특히 신임감사의 부임행렬로 추정되는 관변행사 장면이 지역민의 일상 풍정과 조합된 <해주도> 병풍은 관풍찰속(觀風察俗) 및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이미지를 현시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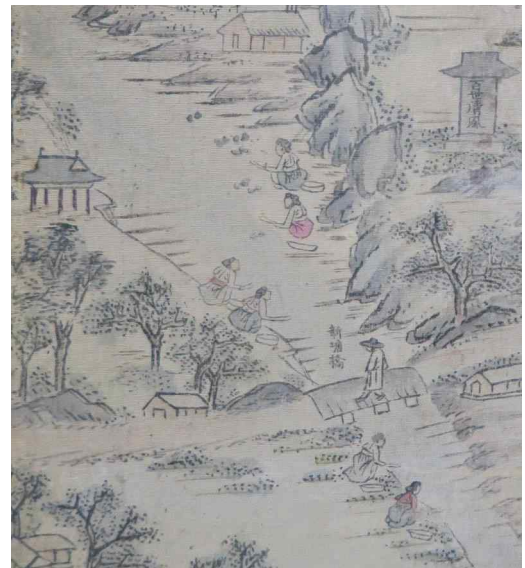


그림 10-1. <해주도> 10폭 병풍의 빨래터 부분

다음으로 <부용상련>은 ‘부용당에서 연꽃 감상’이 화제이다.(그림 11) 부용당은 객사 남쪽의 연못 가운데 지은 수루 일곽을 지칭한다. 원래는 1500년(연산군 6) 못가에 목사 윤석(尹楫)과 판관 정자지(鄭子芝)가 창건한 응향각(凝香閣)만 있었으나 1526년(중종 21)에 관찰사 김근사(金謹思, 1466-1539)와 목사 김공망(金公望)이 못 안에 박은 돌기둥 위에 부용당을 짓고 응향각 건물과 연결하였다. 1660년(현종 1)에는 감사 정만화(鄭萬和)와 목사 나성두가 퇴락한 당우를 중수하였다.<sup>51)</sup>(그림 12) 누각의 건축미와 연꽃,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까지 풍치가 빼어나 16세기 말 성수익은 「팔영」의 하나로 ‘연당청우’를 꼽았다.

부용당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당우의 서소실(西小室)에 기거한 이후 더욱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1742년 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7쪽.

51) 『해주지』와 『여지도서』 같은 지리지, 해주를 방문한 관료문인들의 시문 등 부용당에 관한 정보는 풍부한 편이다. 그런데 부용당 건립을 주도한 인물이 宋時烈의 『海州芙蓉堂記』(『宋子大全』 卷140)에서는 안찰사 金謹思로, 『해주지』에서는 목사 金公望으로 기록되었다. 1526년 동시기에 두 사람이 황해감사와 해주목사로 벼슬살이를 한 것으로 보아 부용당 役事를 함께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47) 19세기에는 지방 도시의 全景을 포괄하면서 일상풍속과 행사 장면을 첨가한 성읍도 형식 병풍화 제작이 성행하였다. 관련 내용은 박정애, 앞의 논문, 2016, 276-295쪽 참조.

48) 『승정원일기』 1867년(고종 4) 12월 14일.

49)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 <해주도> 6폭 병풍에 대해서는 박정애, 앞의 논문, 2016, 286-287, 292쪽 참조.

50) <해주도> 병풍에 기입한 소표제 중 ‘읍천송객’의 ‘泣’자를 ‘掘’으로 오기하였다. 정다운, 「<화성전도> 병풍 연구」, 한국학중앙연구

(영조 18) 영조가 어필 현판 ‘부용당’을 하사한 것도 왕실과의 인연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1762년 황해감사를 지낸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이 ‘관북의 낙민루(樂民樓)와 관서의 연광정, 그리고 해서의 부용당이 병칭할 만하다’고 칭송할 만큼 지역 내외에 소문난 명소가 되었다.<sup>52)</sup>



그림 11. <부용상련>, 《해주팔경도》 중



그림 12. 해주 부용당 모습,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1879), 국립중앙박물관

<부용상련>은 화면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연못과 담장이 에워싼 응향각과 부용당 일곽의 건물들을 부감시로 조망하였다. 누마루와 못에 띄운 정자선(亭子船)에는 기악을 즐기는 인물들이 모여 있다. 아직 연꽃이 개화하기 전 초여름의 풍치인 듯하다. 이처럼 부용당이

52) 徐命膺, 『保晚齋集』卷8, 「重修芙蓉堂記」.

연회 장소로 애용되었음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1798년(정조22) 사관(查官)으로 해주에 간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관찰사 이의준(李義駿, 1738-1798)의 초대로 인근 고을의 수령 10여 명과 더불어 부용당 잔치에 참석하였다.<sup>53)</sup> 홍인모(洪仁謨, 1755-1812)는 1810년(순조 10) 족숙(族叔) 홍희신(洪羲臣)이 관찰사로 재직할 때, 홍길주(洪吉周)·홍경모·홍순모(洪淳謨)·홍희영(洪羲諱) 등 일가친척 9명이 부용당에서 연회를 가졌다고 기록하였다.<sup>54)</sup> 그 이전부터 해서지방에서 지방관을 역임한 풍산홍씨 가문 인사들이 많았다. 홍경모의 조부로 1770년(영조 46) 2월 황해감사에 제수된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재임 시절 부용당의 정취에 매료되어 「부용당잡영(芙蓉堂雜詠)」을 짓기도 했다.<sup>55)</sup>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역시 감사로 재임하던 1862년(철종 13) 7월 부용당 아래 못에서 선유하며 기망사(既望詞)를 지었노라고 하였다.<sup>56)</sup>

한편 1863년(철종 14)에는 부용당 연못 안 바위에 새로 선조대왕주필기적비(宣祖大王駐蹕紀蹟碑)를 세웠는데, <부용상련> 화면의 우측 바위 위에는 몇 그루 수목만 그려졌다.<sup>57)</sup> 아울러 화면 상부에 드리워진 구름은 부용당이 선조가 임어(臨御)했던 상서로운 공간임을 나타내는 회화적 장치로 보인다. 부용당이 왕실사적이라는 인식을 시각적 이미지로 승화시킨 셈이다. 화가가 <부용상련>에 왕실사적이자 유상 공간인 부용당의 장소성을 모두 담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기적비의 유무는 《해주팔경도》의 제작 시기를 상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요소이다.

이 밖에 남쪽의 <부용당도> 한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58)</sup>(그림 13) 오른쪽 응향각 옆에 주묵(朱墨)으로 “부용당”이라 써놓았는데, 그 위치나 글자 크기로 보아 나중에 부기한 듯하다. 남쪽에서 조

53) 丁若鏞, 『茶山詩文集』卷14, 「芙蓉堂記」.

54) 洪仁謨, 『足睡堂集』卷4, 「族叔參判公羲臣按節海西族祖尙書公以板輿就養于營中余時在瑞興與仲男吉周往拜遂設宴於芙蓉堂尙書公之從孫敬謨觀察公之子淳謨在營族叔羲諱適來幕府有致浩義民同姓會者凡九人」.

55) 洪良浩, 『耳溪集』卷4, 海西錄, 「芙蓉堂雜詠」. 홍양호는 登樓·泛池·花·葉·實·夜·月·雨·採蓮舟·浮香橋 등을 시제로 삼았다.

56) 李裕元, 『林下筆記』卷25, 春明逸史, 「芙蓉堂紀遊」.

57) 『哲宗實錄』1863년(철종14) 11월 5일 李裕元, 『林下筆記』卷25, 春明逸史, 「芙蓉堂堅碑」. 이유원은 金炳學이 지은 비문을 새긴 비석을 세운 시기가 임술년, 즉 1862년(철종 13)이라 했는데, 착오인 듯하다.

58) 현재 <부용당도>는 경형산수화 3점과 함께 하나의 유물번호(덕수3008)로 등록되어 있어 일괄 유물로 박물관에 들어온 듯하다. 하지만 그림의 주제와 필치가 제각각이어서 ‘부용당도’라는 유물명은 정정할 필요가 있다.

망한 <부용상련>과 달리 <부용당도>에는 북동쪽에서 내려다본 부용당과 연못 일대 경관을 재현하였다. 방지 외곽의 울창한 수림(樹林)과 민가들, 원산의 실루엣까지 포괄하였다. 비록 보존상태가 불량하지만, 화면 구성이나 경물의 묘사력이 안정적이어서 중앙화사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부용상련>과 조망 시점 및 필치가 다른 <부용당도>의 존재는 부용당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명소였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각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림 13. 작자미상, <부용당도>, 견본담채, 28.1×36.0cm, 국립중앙박물관

《해주팔경도》의 나머지 네 폭, <남산망해>·<동정조어>·<남강범주>·<읍천송객>도 화제에 갖든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표 1)(그림 8) 해서의 거점도시 해주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과 바다 구경, 낚시, 해상 선유, 이별 현장 등 세태 장면을 조합해 현장감을 살리고자 했다. 이는 해주 관련 시각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이자 경향성으로 보인다.

#### 4. 결 론

조선 후기 황해도 감영이 자리했던 해주는 서도지방을 떠받치는 정치·사회적 거점도시 중 하나였다. 해주는 지리적으로 서해와 국경으로 통하는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였다. 18세기 이후에는 각종 자원과 풍부한 물산을 토대로 하는 상업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도회로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해주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과 왕실의 피난처가 되었으며, 조선 성리학의 기틀을 다진 율곡 이이가 말년에 해주 석담에 은거하였다. 왕실과의 인연이나 이이의 행적은 문인지식인들의 해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객을 증가시킨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해주를 대표하는 명승 경관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와 같은 지역사의 전개와 문예적 성과가 다양한 문헌기록과 시각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명승과 명승도를 중심으로 해주를 표상하는 경관과 세태 이미지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해주 명승의 뼈대를 이루는 팔경은 16세기 말 「해주팔영」을 읊은 성수익의 「구팔경」에서 유래하였고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신팔경」도 등장하였다. 외지 출신 지방관이나 유람객들은 해주의 경관과 세태를 제재로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해주 명승을 지역 내외로 전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현존하는 해주 관련 시각자료는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화면에 경관뿐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일상적 풍경까지 포함한 사례가 많다. 그 중 해주 방문 이력이 없는 정선의 명승도에는 간접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반면에 지역화사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해주팔경도》는 개별 명승지의 특색을 잘 살린 편이다. 팔경도의 내용이 성읍도 형식 <해주도> 병풍에 수렴되는 현상은 주문자와 화가가 해주를 표상하는 이미지의 총체를 구현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평양이나 함흥 같은 여타 지방 도시의 시각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향후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과 공개,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해주의 진면목이 복원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海州志』
2. 具思孟, 『八谷集』.
3. 權燮, 『玉所集』.
4. 金壽增, 『谷雲集』.
5. 金樛, 『儉齋集』.
6. 金昌集, 『夢窩集』.
7. 金昌協, 『農巖集』.
8. 金昌翁, 『三淵集』.
9. 徐宗華, 『樂軒集』.
10. 俞晚柱, 『欽英』.
11. 尹行恂, 『碩齋稿』.
12. 李觀命, 『屏山集』.
13. 李敏求, 『東州集詩集』.
14. 李裕元, 『林下筆記』.
15. 李夏坤, 『頭陀草』.
16. 許傳, 『性齋集』.
17. 洪敬謨, 『觀巖全書』.

18. 구완희, 「『碧城日錄』을 통해 본 19세기 초의 海州判官」, 『朝鮮史研究』 제2집, 1993.
19. 김두섭,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학회』 24, 1992.
20. 김용국, 『황해도지(명승고적편)』,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내 황해도, 1970.
21. 김하라, 「俞晩柱의 海州-「欽英」에 나타난 18세기 해주의 역사지리학」, 『한국한문학회연구』 제77집, 2020.
22. 노재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해주팔경도(海州八景圖)에 표현된 조선 후기 해주의 풍경과 풍물」, 『문화재』 제54권 4호, 2021.
23. 박은순, 「19세기말 20세기 초 회화식 지도와 실경산수화의 변화: 환력(宦歷)의 기록과 선정(善政)의 기념」, 『미술사학보』 56, 2021.
24. 박정애, 「朝鮮後期 平壤名勝圖 연구 - 《平壤八景圖》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39집, 2012.
25.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26. 박정애, 「19세기 연폭 실경도 병풍의 유행과 작화경향 -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록화 인물화』,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6.
27. 박정애, 「19세기 連幅 實景圖 屏風에 관한 고찰」, 『문물』 제8호, 2018.
28. 박정혜, 「남승도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29. 변영섭, 『豹菴姜世晃繪畫研究』, 일지사, 1988.
30. 서종태 역주, 『여지도서 23, 황해도 I』, 디자인 흐름, 2009.
31. 여상진,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2012.
32. 여상진,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2014.
33.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受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218, 1998.
34.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제61집, 2019.
35. 이상원, 「조선후기 <高山九曲歌>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4집, 2003.
36. 이상원, 「『高山九曲詩畫屏』의 구성상 특징과 所載 詩文에 대한 검토」, 『국제어문』 31집, 2004.
37. 이중환 지음, 안대회·이승용 외 옮김,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8.
38. 李泰鎭·李相泰 책임감수, 『朝鮮時代 私撰邑誌 33, 黃海道 3 海西邑誌』(영인본), 한국인문과학원, 1990.
39. 정다운, 「<화성전도> 병풍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0. 제송희, 「조선후기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과 특징」, 『정신문화연구』 통권 144호, 2016.
41.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 2006.
42. 최완수, 『검재 정선』 1~3, 현암사, 2009.
43. 황정연,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 신구문화사, 2012.
44.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45.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46.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47.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접수(2023.09.06.)

게재확정(2023.10.04.)